

2020년 8월 3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5편 27~2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허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27~28절)

◎ 찬 송 / 325장(통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04 - “의의 호심경 - 의의 호심경을 가진 성도의 삶”

전신 갑주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면, 먼저 로마 군인의 갑주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서, 육신의 갑주가 몸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는 지를 파악하되 상징적인 의미까지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갑주와 그 갑주가 보호하려는 기관 사이의 성질이나 관계를 통해 영적인 갑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두 번째 갑주에 적용하면, 두 번째 갑주의 의미는 의의 심장이 계속 박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듯, 영혼의 심장인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은 왜 영혼의 심장을 의와 연결했습니까? 성경적으로 “의”는 매우 방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이 영혼의 심장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의에 접근하면 의는 영혼의 생명, 곧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것입니다. 영적인 심장이 박동할 때, 그 심장의 추진력을 따라 성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심장이 박동할 때 우리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신 감주로서 의의 호심경은 성도의 거룩함을 향한 심장의 박동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긴한 보호대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정의에서도 그리스도 의는 성도가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감주로서의 의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교훈은 결코 아닙니다. 의의 감주는 “칭의”를 얻어 영혼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심장이 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며, 이러한 의로운 심장의 박동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에게 이 의의 호심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의 심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의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의 호심경을 붙인 성도는 세상 속에서는 “의의 기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 기준은 성도의 삶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의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혼의 심장이 의롭게 박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국교회 성직자이면서 청도교 신학을 가진 윌리엄 거널은 이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하며 성도의 실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삶의 기준이 되는 올바른 규범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른 목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분명 거룩함, 경건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바른 기준입니다. 바른 기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성도를 산만하게 만들어 성도가 의로운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15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보여 주신 거룩함 삶의 모습을 유심이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보지 못하는 참된 것을 보며, 세상을 거스리는 제자로 살며,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의의 갑주를 붙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는 일에 서로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 했습니다. 지지할 뿐 아니라 서로의 협력자요 동역자이며 친구요 믿음의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종말의 시작에서 현재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을 알아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선함으로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다섯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장소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참된 의를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주간도 의의 호심경으로 믿음의 심장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언약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서로를 세우고 도우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70장(통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폐 회 / 주기도문